

3) 김굉필의 사상적 영향과 호남사림의 동향

김굉필의 도학사상과 『초학』의 중요성은 중종반정 이후 사림사회에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그의 학통을 이은 조광조·김안국·최산두·기준 등 이른바 기묘사림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도학정치론이 제기되었다. 이것은 기묘사화의 근본적인 확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기묘명현 가운데 호남 출신의 사림이 눈에 띄게 많았다는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최산두·기준·윤구·유성춘 등 김굉필의 학통을 이은 소장파 사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준은 경석에서 중종에게 도학치국론을 역설하였고,¹⁾ 구례 출신의 안처순은 도학 교과서의 하나인 『탄사록』을 간행하여 향읍에 반포하였으니²⁾ 이들이 곧 호남의 기묘명현들이다. 기묘사화 이후 호남사림이 당한 피화의 후유증이 작지 않았던 만큼 전라도 사림계는 위축되고 사류들의 사기 또한 저상되었다. 그러나 관로를 기피하고 중앙 진출의 경향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사화에 연루된 사림을 중심으로 그들 상호간의 교류·결속 관계는 오히려 강화된 면도 없지 않았다. 무등산록을 중심으로 이어진 광주·나주 지역과 남원·해남 등지에 뻗친 전라도의 사림 기반은 도학사상의 흐름이 사상적 기초를 이룬 가운데 동서간의 당색분열이 있기까지 대체로 결속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종대 후반 이후에 들어와서는 도학정치사상을 표방했던 기묘명현의 차세대 사류들이 호남지역의 사림계를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주로 을사명현의 세대인 김인후·유희춘·오겸·임억령·양응정 등이 그들이다. 그 중에서도 김굉필의 도학과 기묘사림과의 경세관을 계승하는 한편 교육활동을 통하여 많은 제자들을 양성한 대표적인 인물이 김인후와 유희춘이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김인후가 성리학 그 자체, 즉 도학의 이론적인 면보다는 실천적인 면을 보다 중시했었던 반면에 유희춘은 경서 연구를 통한 저술활동에 보다 치중했던 점에 차이가 있다.

김인후의 절의와 사상은 최산두·김안국·기준·박상 등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따라서 기묘사림과의 영향을 가장 깊이 받은 인물도 바로 그였다. 즉 기묘사림과의 사상적 기저가 『초학』의 실천윤리에 있었다고 볼 때 그것을 특히 중시했던 이가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그는 문인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초학』부터 읽힌 다음에 『태학』을 배우게 하였고, 그의 두 아들에게도 역시 『초학』을 10년 이상 공부한 후에야 비로소 다른 책을 보게 했던 사실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김인후와 유희춘 이후에 호남사림의 도학적 특성을 뚜렷히 이어받은 인물이 곧 기대승과 이발이었다. 기대승이 이론적인 면에 뛰어난 학자였다면, 이발은 도학이론을 현실정치에 실현하려 했던 실천적 또는 경세적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기대승은 30대의 나이에 이미 그보다 20여 년 선학이자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였던 이황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을 만큼 학문이 출중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리철학을 궁구하는 데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정치철학에도 일가견을 수립하였으니 그의 『탄사록』에 담긴 정치사상이 그것을 대변해준다.

기준의 조카로서 기묘사림과의 정치사상을 계승한 그는 선조에게 행한 경연에서, 기묘사화에 얽힌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린 다음에 민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 김인후와 마찬가지로 『초학』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했던 사림과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경석에서 선조에게 김굉필이 행한 후진교육으로 『초학』이 널리 읽혔음을 지적하고, 조광조

1) 『똥중실록』 권27, 중종 12년 2월 庚申.

2) 안처순, 『愚齋實記』 권6, 행장(盧稹撰).

등 기묘사림이 모두 소학정신을 받들어 사친사군의 도리를 알게 되었다고 역설하면서 왕에게 직접 『소학』을 진강(進講)하기도 하였다.³⁾

기대승보다 17년 후배였던 이발은 1573년(선조 6) 알성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뒤 사론을 주도하여 일찍부터 소장과 사림의 영수로 지목되었다. 따라서 관료에 오르면서부터 전랑직에 발탁되는 등 청요직만을 거친 그는 기묘사림의 지치주의(至治主義)를 사상적 이념으로 삼았다. 특히 그는 조광조의 혁신정치를 계승하여 경연에 출입할 때마다 왕도정치를 개진하였으며, 정치기강을 바로잡고 시비를 분명히 하는 데 조금도 꺼림이 없었다.⁴⁾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서분당과 기축옥사로 인한 사림의 분열로 인해 이발의 정치이념이 끊기고 조선 전기 호남사림의 도학사상 역시 단절되고 말았다.

지금까지 무오사화 직후 호남지역에 싹튼 김굉필의 도학사상과 함께 그것이 기묘사화 이후 호남사림의 사상적 기초가 되어 선조 때까지 이어져온 흐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본 호남사림의 줄기는 주로 김굉필 연원의 학통을 이은 재지사류들과 조광조를 위시한 중앙의 김굉필계 문인들이 연계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묘사화 이후 김굉필의 실천적 도학사상은 김인후·유희춘·기대승·이발 등 대체로 호남 출신의 사림이 뚜렷하게 계승하였지만, 절의를 앞세운 그들의 실천윤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었다. 따라서 기묘사화와 을사사화에서 거듭 깊은 상처를 입은 호남지역의 사림은 다시 안서순상소사건을 거쳐 선조 때의 기축옥사로 인해 치명적인 손상을 입고 도내의 사림계부터 분열, 와해되는 국면을 맞게 되었다.

선조 때에 들어와서 중앙정계에 분당의 조짐이 나타나면서 비롯된 현상이었지만,⁵⁾ 당시 호남지역의 사림사회는 사림간의 대립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나주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재지사림 사이에 불화의 조짐이 일고 있었다. 사실상 기축옥사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 정개청이 나주훈도로 있을 때부터 현지 사류들간에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었다. 정개청을 위시한 그의 문인들과 학연을 달리한 사류들과의 마찰이 뚜렷하였고, 김천일의 문인들과 정개청의 문인들간에도 일건(一件)의 의례문제로 인해 상대방을 비방·질시하면서 첨예한 대립양상을 나타냈다.

결국 정개청을 비롯한 그의 문인들은 동서분당 이후 동인측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강의계(講義契)를 조직하고 향약을 보급하며 향음주례(鄉飲酒禮)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향촌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김성일과 결합하여 경현서원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나주지역에서 서인측을 압도하는 재지세력으로 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현지 서인계 사림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그것이 표면화되어 마침내 기축옥사라고 하는 커다란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되었다.

1589년(선조 22)에 일어난 기축옥사는 이른바 정여립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정여립이 과연 역모를 꾀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예도 있다. 아무튼 이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히 많은 호남 출신의 사류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그리고 그 희생자들 중에는 당시의 위관(委官)이었던 정철과의 개인적인 원한관계와 공명을 노린

3) 기대승, 『돈사록』상, 선조 즉위년 11월 초4일 朝講·11월 16일 夕講·선조 1년 4월 초3일 夕講.

4) 정약용, 『東南小史』 권1.

5) 나주지역의 예로 보면, 중앙으로부터 김효원·심의겸 등의 분당 조짐이 나타난 직후, 즉 1577년(선조 10)에 이미 동인계 정개청의 문인들과 서인계 김천일의 문인들 사이에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일부 기회주의자들의 허위성 고발에 의해 터무니없이 역모로 몰린 사류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당시 ‘호남오신’으로 일컬어진 이발·정개청·유몽정·조대중·이길(이발의 아우)이 모두 정철과 원한관계에 있었던 인물들이었을 뿐 아니라, 이들을 고발한 양천회·정암수·홍천경 등이 정철과 가까운 서인측 사류들이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일찍부터 정철과 깊은 정적관계에 있었던 인물이 곧 이발이었다. 이 두 사람은 전라도 창평과 남평에 향리를 둔 같은 호남 출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과에 장원급제한 명인들로서 중앙에서도 그 명망이 쌍벽을 이룰 만큼 당대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상호간의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마침내 기축옥사 발생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